

‘우승 확률 60%’ 잡은 KIA, 후반기 시작이 중요하다

전반기 1위

9~11일 LG·12~14일 SSG전

‘10구단 체제’ 2015시즌 후 66.7% 첫 경기 내일 vs 캘리 에이스 맞대결 치열한 선두 싸움 속 기선 제압 절실



2024시즌 전반기를 선두로 마친 KIA타이거즈가 후반기에 돌입한다. 열두 번째 왕좌

도전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우승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까지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각오다.

KIA는 지난주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삼성라이온즈와의 3연전을 모두 싹쓸이하며 선두 수성에 성공했다. 롯데자이언츠에 1무 2패로 발목을 잡으면서 침체될 수 있었던 흐름을 완벽히 반전했다.

특히 60%의 우승 확률을 잡아냈다. KBO 리그가 단일 리그로 진행된 1989년 이후 35시즌(1999·2000년 제외) 중 전반기 1위 팀은 21회의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KIA는 1989년과 1991년, 1993년, 2002년, 2011년, 2017년 등 여섯 차례 전반기 1위를 차지했고 이 중 네 차례 우승기를 들어 올렸다.

10개 구단 체제인 2015년 이후 9시즌



제임스 네일

으로 압축하면 우승 확률은 더 높다. 전반기 1위 팀이 여섯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해 66.7%의 확률을 보였고, 정규 시즌 우승은 2019년 단 한 번을 제외한 여덟 차례로 88.9%에 달했다. 특히 KIA는 11회의 한국시리즈 역사상 단 한 번도 준우승이 없는 팀이다.



윤영철

●LG, 후반기 첫 단추의 중요성

LG트윈스는 지난주 최하위 키움히어로즈에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안으면서 일격을 당했다. 순위는 2위로 변동이 없었지만 KIA와 1.5경기에서 3.5경기차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됐다.

양 팀은 올스타 휴식기를 갖고 돌아온

2024 KBO리그 순위		(8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83	48	33	2	0.593	-
2	LG	86	46	38	2	0.548	3.5
3	두산	87	46	39	2	0.541	4
4	삼성	85	44	39	2	0.530	5
5	SSG	84	41	42	1	0.494	8
6	NC	83	40	41	2	0.494	8
7	KT	85	38	45	2	0.458	11
8	롯데	80	35	42	3	0.455	11
9	한화	82	36	44	2	0.450	11.5
10	키움	81	35	46	0	0.432	13

만큼 1~3선발이 나란히 출격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KIA는 제임스 네일과 양현종, 캄 알드레드가 준비하고 LG는 케이시 켈리와 디트릭 앤스, 임찬규가 대기한다.

네일과 양현종, 알드레드는 모두 LG를 상대로 흐름이 좋았다. 네일은 세 차례 선발 등판에서 18.1이닝을 소화하며 1승, 평균자책점 1.96을 기록했고 양현종은 한 차례 선발 등판에서 5이닝을 소화하며 3실점했지만 승리를 챙겼다. 알드레드 역시 한차례 선발 등판에서 승패는 없었지만 6이닝 무자책점 위력투를 펼쳤다.

다만 잠실에서의 흐름은 고민이 될 수 있다. 네일은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11.1이닝 동안 9실점(6자책점)했고, 알드레드는 한차례 선발 등판에서 3이닝 6실점

으로 부침을 겪었다. 양현종은 올해 첫 잠실 등판을 준비한다.

●SSG, 치열한 가을야구권 경쟁

SSG랜더스는 지난주 NC다이노스와 우천 취소로 첫 경기를 쉼 뒤 2패로 루징시리즈를 안았다. 순위는 5위로 변동이 없었지만 KIA와 5.5경기에서 8경기 차로 벌어졌고, 6위 NC와 승률이 같아져 가을야구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

SSG는 안방인 인천에서 롯데를 상대로 후반기 첫 3연전을 치르는 가운데 전국적인 비 예보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서울과 인천 모두 비 예보가 있지만 한 지역 또는 두 지역 모두 비가 내린다면 선발 로테이션이 조정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주중 3연전이 펼쳐진다면 KIA는 윤영철과 임기영, 네일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고 SSG는 오원석과 송영진, 로에니스 엘리야스가 등판할 차례다. 이번 주 부상에서 복귀하는 엘리야스가 주 2회 등판을 소화할지도 주목되는 요소다.

윤영철과 네일이 SSG 상대 약세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과제다. 윤영철은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12이닝 6실점, 네일은 한차례 선발 등판에서 6이닝 5실점으로 고전했다. 특히 윤영철은 올해 광주에서 여섯 차례 선발 등판해 1승 2패, 평균자책점 5.14에 그치고 있다.

한규빈 기자

이임생 기술이사 “홍명보, ‘원팀’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

대표팀 감독 선임 공식 발표 울산과 협의 후 부임 시기 결정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후임으로 홍명보(사진) 울산 HD FC 감독을 낙점했다. 다만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의 돌연 사퇴로 감독 선임 과정을 주도한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겸 기술총괄이사는 브리핑에서 뚜렷한 논리 대신 감정적인 호소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8일 서울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공식 발표했다. 홍 감독의 계약 기간은 다음 아시안컵까지로 2027년 1월까지 지휘봉을 잡는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전날 홍명보 감독의 내정을 알렸다. 이어 최종 절차를 주도한 이 이사의 브리핑을 통해 선임 공식화하고 낙점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홍 감독을 선임한 이유로 △협회 철학 및 경기 모델에 맞는 플레이 스타일 △연령별 대표팀과 연속성 및 연계성 △탁월한 리더십 △외국인 지도자 국내 거주 이슈 △지도자로서 성과 △외국인 감독의 시간적 어려움 △과거 국가대표팀 지도 경력 △외국인 감독 체류 시간 확보 등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이 이사는 “홍 감독은 울산에서 상대의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격했다. 선수들의 장점을 살려 공수 밸런스 기회 창출 등도 보였다”며 “기회 창출과

빌드업, 압박 강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활동량이 10위라는 점까지 해석하면 효과적으로 경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감독은 A대표팀 뿐만 아니라 23세 이하와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은 물론 전무로 기술과 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 각급 대표팀의 연속성과 연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축구가 가져야 할 원팀 정신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의 재임 시절 잦은 재택근무로 논란이 됐던 국내 거주 이슈에 대해서도 최종 후보에 올랐던 두 명의 외국인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외국인 감독의 국내 거주

이슈를 교훈 삼아 국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홍 감독이 K리그 우승 2회, AFC 챔피언스리그 8강 등 성과도 더 보여줬다”며 “당장 9월에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외국인 감독은 선수들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이 이사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애써 눈물을 참으며 답변을 이어갔지만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 이사는 “정해성 위원장의 사임 후 누구든 절차대로 감독 선임을 진행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임무를 받고 절차에 맞게끔 일을 추진했다”며 “추후 울산 구단과 협의를 통해 부임 시점을 결정하겠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구단에도 감사하고 죄송하며 특히 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규빈 기자

‘포환’ 정지송, 국내 최초로 패럴림픽 육상 투척 도전

내달 파리 대회 출전권 획득 “꿈 향해 후회 없이 던질 것”

다음 달 개막하는 2024 파리 패럴림픽 포환던지기 출전권을 획득한 광주장애인 육상연맹 소속 정지송(26·삼호개발·사진)이 국내 최초로 패럴림픽 육상 투척에 도전한다.

목표 순위는 5위이지만 입상권과 최고 기록이 약 30cm 차이에 불과한 만큼 메달 사냥에도 도전해 보겠다는 각오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정지송이 패럴림픽 포환던지기 F41에 출전한다고 8일



밝혔다. 왜소장애에 해당하는 스포츠 등급인 F41에서는 정지송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던지기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정지송은 지난 2017년 풍암고재학 중 지적 능구로 장애인 체육을 접한 뒤 2019년 장애인 육상으로 전향했다. 이어 2020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인 선수로 발탁되며 가능성을 알렸고, 지난해에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된 바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육상전문체육지도자인 이상준 감독과 박영식 코치의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으로 정지송의 패럴림픽 출전을 도왔다. 이들은 체격이 다부지고 힘이 좋은 정지송을 장애인 육상으로 종목을 변경시킨 뒤 대한장애인육상연맹에 성장 가능성을 꾸준히 어필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제 대회 경험을 쌓도록 도왔다. 이에 정지송은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4위에 올랐고, 지난달 2024 파리 장애인 육상 오픈(2024 파리 그랑프리)에서는 11.07m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 서구청 최은숙, 회장배종별펜싱선수권 ‘금빛 찰리’

광주 서구청 최은숙(사진)이 제53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금빛 찰리기에 성공하며 시즌 3관왕을 달성했다.

최은숙은 지난 7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끝난 이번 대회 여일반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전남도청 박소형을 15-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최은숙은 3월 실업연맹회장배와 5월 62회 전국종별선수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우승컵을 품에 안아 시즌 3관왕에 올랐다.

서구청 남자펜싱팀 이승현은남일부에



페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승현은 준결승에서 마세건(부산시청)에게 12-15로 졌다.

김대연·이승현·김상진·이정함이 출전한 남일부 단체전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서구청 남자 에페팀은 8강서 익산시청을 45-33으로 꺾고 4강에 올랐으나 부산시청에 33-38로 석패하며 3위에 만족했다. 이로써 광주 서구청 펜싱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최동환 기자